

지성의 전당인 대학서 금권선거 추방해야

기획 학생회 선거 이제는 바뀌야 한다 <1> 금권선거

돈있어야 선거 나간다는 말 ‘공공연한 사실’

‘정치권 뺨치는’ 선거에 유권자들도 책임 있어

학생회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은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돈선거는 기성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차례 총학생회 선거운동에 참여해 주요직을 맡았던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선거비용이 3000~4000만원은 기본이고 역대 규모의 지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본부 선거비용의 70%가 식대비와 유흥비로 소비된 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본부 MT(숙소비, 식사하고 술을 마시는 비용), 회식비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은 많은 학과 학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학과대표 등을 포섭하기 위해 술을 사는 데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입을 점퍼, 학생들을 운송할 차량 유류비로도 지출하고 있다.

단과대학 등 풀뿌리 학생회 선거에도 천만원대 이상의 선거운동비용이 사용되기도 한다. 경선이 치러진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한 학생은 “150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붓고 있던 적금을 깨면서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일부 입후보자가 운대는 은행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여러 경로로 돈을 모아 출마하는 사람도 봤다”고 말했다.



술을 한 번 더 사준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우리만 안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돈선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학생은 “초중고 동창회 등을 통해 선거를 하는 것은 제주사회의 특성”이라며 “기성 정치권 선거에서 봐온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고 말했다.

정책 홍보비용보다 식대비, 유흥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은 선거경쟁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잡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밥이나

김명지 기자

학내외 추천위원 선출방법 확정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관련

학내위원 1인 1표 추천키로

여성위원 배정 방식도 결정

10월 10일 공모 공고 및 접수를 앞두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이 모두 확정됐다.

추천위원회 학내위원과 학외위원 선출 방법은 각각 평의회(의장 송석인)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치완)를 통해 결정됐다.

학내위원 선출은 1인 1표제 방식을 통해 위원 선출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1차 평의회에서 이같은 방식이 결정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단과대학(원)별 교원위원 배정 또한 확정됐다. 확정된 인원은 △의학전문대학원 5명 △공과대학 4명 △사범대학·자연과학대학 각 3명 △인문대학·경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해양과학대학·교육대학 각 2명 △사회과학대학·수의과대학·간호대학·예술디자인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육대학원+통역번역대학원 각 1명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여성위원 배정 방법이 합의됐다. 이는 여성추천위원이 선출된 단과대학 또는 부서를 제외하고 남성위원만 순위에 있으면서 2명 이상의 위원이 배정된 단과대학의 경우 마지막 순위를 여성위원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교체될 여성위원은 각 단과대학 또는 부서에서 순위 외에 있는 여성 득표자 중 비율이 가장 높은 득표를 얻은 자가 된다.

또한 학생위원 선정방법도 확정됐다. 총학생회에서 선출직 학생회 간부 중에서 5인을 추첨으로 선정하되

선정된 위원은 비공개로 추천관리위원회에 명단이 이송되는 방식이다. 현재 선출직 학생회 간부는 학생회 중앙자치기구인 총학생회, 총대의원

회,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회(의)장, 부회(의)장이다.

평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기성회 이사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외부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학외위원 선출방식도 채택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공모지원자의 홍보 방법, 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안 등이 확정됐다. 홍보는 홈페이지, 소형인쇄물, 인터넷, 전화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추천위원을 대상으로 한 합동연설회는 15분씩 1회 이상 실시하고, 응모자당 총 14문항씩의 질문이 주어지는 정책토론회는 인터넷 방송으로 학내에 공개된다.

한편 학내·외위원 선출기관이 다른 것은 지난달 12일 오후 평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명지 기자

제주흑우 송아지 사후 복제 성공

<死後>

박세필 교수팀, 인공수정기술로 정상 분만 성공

세계 최초... 생산체계 확립 등 가능 전망

사후(死後)에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된 제주흑우 사이에서 세계 최초로 송아지가 태어났다.

박세필(분자생명공학전공) 교수는 지난달 2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후에 이용해 복제된 제주흑우 사이에서 인공수정 기술을 통해 지난 1월 9일 ‘흑우돌이’가 287일 만에 정상 분만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멸종위험 동물인 제주흑우 씨 암·수소의 종 복원과 개체생산 체계가 확립돼 앞으로 우수 종 보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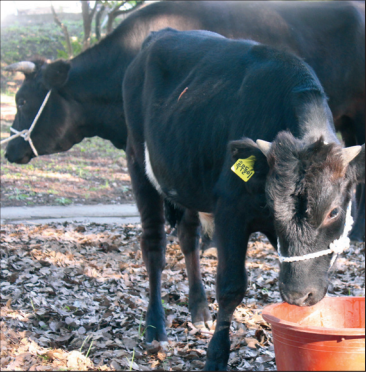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우장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박세필 교수와 김은영 교수, 국립축산과

학원 난지축산시험장, 제주축산진흥원 및 (주)미래생명공학연구소가 공동 참여했다.

연구팀은 노령으로 도축된 최우량 제주흑우의 체세포를 무염색난자핵 제거기술이 이용된 체세포핵이식기술과 초급속냉·해동직접이식기술로 2009년에 흑우돌이(수컷), 2010년에 흑우순이(암컷)를 각각 복제했다. 이후 인공수정을 통해 송아지 흑우돌이가 탄생했다.

박세필 교수는 “멸종위험 동물인 제주흑우를 복원하고 사후 복제한 개체들의 생식능력 확인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구제역과 같은 자연재앙으로부터 우수 종 보존이 가능하며 가족을 이용한 치매 등 난치성 질환모델 동물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경태 기자



지난달 26일 제주도청 팔각정에서 사후 복제돼 태어난 ‘흑우돌이’가 공개됐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국외 학술지 ‘Journal of Reproduction and Development’의 2013년 8월호 온라인에 게재됐다.

한편 제주흑우는 현재 남아있는 개체가 480여 마리로 적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멸종위험 동물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 7월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됐다.

2014 전기 대학원 모집

석사 216명·박사 144명 선발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특별·일반전형 모집이 이뤄진다.

특별전형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반전형은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과정 216명,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144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입학원서 접수 대행 홈페이지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달 18일, 일반전형 발표는 내년 2월 6일부터 5일간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전기 모집에서 석사과정에 풍력공학부, 시각융합디자인학협동과정, 공업융합디자인학협동과정 등이 신설된다. 또 석·박사 통합과정에 가정관리학과, 차세대융합과학기술협동과정이 신설된다.

문의=입학관리과(전화 754-2045 인터넷 ibsi.jejunu.ac.kr)

경상대학, 아라체전 종합우승... 자연대학은 준우승

농구 등 10개 종목 겨뤘

모범운동원에 인문대학

경상대학이 총학생회(회장 유병선) 주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아라체전에서 종합 우승했다.

이번 아라체전은 농구, 축구, 족구, 발야구, 피구, 승부차기, 씨름,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계주 등 10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유병선 총학생회장은 “취업전쟁과 스펙 쌓기 등 일만아라 학우들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짧은 패기와 열정이 가득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종합 준우승-자연과학대학 △모범운동원-인문대학 △농구 우승-수의과대학 준우승-공과대학 △축구 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승-생명자원과학대학 △족구 우승-경상대



지난달 26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단체줄넘기 종목에서 인문대학 선수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다.

강경태 기자

학B 준우승-경상대학A △발야구 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승-사회과학대학 △피구 우승-경상대학 준우승-자연과학대학 △승부차기 우승-자연과학대학 준우승-사회과학대학 △씨름 우승-공과대학 준우승-경상대학 △줄다리기 우승-공과대학 준우승-자연과학대학 △단체줄넘기 우승-경상대학 준우승-간호대학 △

계주 우승-경상대학 준우승-인문대학 강수빈 기자

사령

강수빈(언론홍보학과 1)

정기자에 임명함

김명수(간호학과 1)

수습기자에 임명함

이상 10월 2일자

제주대신문

다음 신문은 중간고사 관계로 30일자 발행

제52회 탐라문화제 기념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전 및 학술대회

재일제주인의 민족교육

민족교육의 선구자 ‘재일제주인 조규훈’을 기억하며

2013. 10. 2. ~ 10. 31.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3층 기획전시실



특별전

기간 : 2013. 10. 2. ▶ 10. 31.
장소 :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3층 기획전시실
개막행사 : 2013. 10. 2. 11:00

학술대회

일시 : 2013. 10. 2. 14:00 ~ 18:00
장소 : 제주대학교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
기조 강연 : 민족교육이란 무엇인가? 양영후(재일오사카제주도연구회 회장)
주제 발표 : 재일한국인 개념론의 연구 동향과 과제 이창익(재일제주인센터장)
한국계 민족학교의 현황과 과제 김성대(백두학원 이사장)
총론계 민족학교의 현황과 과제 김덕룡(오사카경제법과대학 객원연구원)

사설

당당한 정책대결을 기대한다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공고에 즈음하여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공고 및 접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문제들도 거의 정리되고 있다.

학내 추천위원 배정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9월 26일 열린 평의회에서 모두 정리가 되었다. 학내위원 36명 중에서 교원(교수)위원 31명은 각 단과대학(원) 전임교원 구성 비율에 따라 1~5명씩 배정되었다. 그 선정방식은, 1인 2표제나 1인 다표제가 아닌, 1인 1표제로 결론이 났다. 여성 위원 선정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표를 하지 않되, 여성위원이 진출된 단과대학(원)을 제외하고 2명 이상 배정된 단과대학(원) 중 여성득표자 비율이 높은 곳의 마지막 순위자를 여성위원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학외 추천위원 12명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9월 27일 추천관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결정하여 평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기성회 이사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에 결정 사항을 통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외위원 관련 기관에서는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12일까지 모두 추천관리위원회에 15~3인씩 3배수의 추천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될 것이다. 총장공모지원자의 홍보 방법, 홍보기간은 물론이요 합동연설회와 정책토론회 관련 사항도 모두 결정되었다.

현직 총장이 사퇴해야 응모지원자가 되느냐, 직무정지 상태로 응모지원자가 되느냐는 문제는 조만간 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정리하여 공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드리는 고언(告言)’을 통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법를 전문가에 자문을 얻어 공모 개시일 이전에 공지하겠다”고 했으니, 수일 내로 자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천관리위원회의 입장을 모두가 존중함으로써 논란이 말끔하게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모두가 ‘쿨하게’ 승복해야 한다. 만약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가 있다면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이제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당당히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동안 자신이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냉정히 평가받는 가운데, 자신이 치밀하게 설계해왔을 향후의 청사진을 낱알이 제시해 주어야 한다. 1만명 이상의 대학생가 단위에 진입하게 되는 상황에서 유수의 국내대학들과 어떻게 경쟁해 나갈 것인지, 동아시아의 구심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구체적인 보여주어야 한다.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응모지원자들의 정책 홍보는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A4 5매 분량의 인쇄물, 인터넷, 전화 홍보만 가능토록 되었다. 응모지원자들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왔을 제주대학교 발전의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 제주대학교의 미래는 이제 그대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질적 수준에 달렸다.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영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캠퍼스 곳곳서 단과대·학과 단위 학술제·축제 열려

중문과 축제 시작으로

당분간 캠퍼스 축제 계속

단과대학, 학과가 주최하는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5일 중어중문학과 축제 ‘홍향제’를 시작으로 인문대학 축제가 일제히 막을 올렸다. 사회학과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진의제’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영어영문학과와 학술제 ‘헬리콘’이 아라무스홀에서 열렸다. 국어국문학과는 지난달 30일 ‘아라어문학’을 개최해 강연·전시회와 공연·가요제 등을 선보였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독일학과에서 유럽 영화 상영과 연극, 굿댄스 등으로 축제가 열렸다. 앞으로 철학과는 24일부터 이틀간 ‘청춘바람’을 주제로 미네르바의 향연을 연다. 사학과는 31일 인문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회과학대학에서는 2일 언론홍보학과 주최로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이제 당신도 더 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영상제를 연다. 앞서 정치외교학과는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제교류회관에서 ‘지속적인 물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제로 모의 UN회의가 열렸다. 또 행정학과는 24일에는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

서 ‘박근혜 정부 공약재현 마련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모의 국무회의를 연다.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축제 ‘한뉘’가 지난달 13일에 열렸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과가 2일에 학생회관 2층 전시실에서 학생들의 연구 내용들을 전시한다.

자연과학대학 체육학부는 지난 1일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도일주 행사를 실시했다.

공과대학은 컴퓨터공학과 주최로 4일부터 이틀간 공과대학 4호관 4층에서 28회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앞서 건축학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일간 박물관 3층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교육대학은 24일부터 이틀간 학술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의과대학은 수의학과 주최로 반려동물한마당이 지난달 26일 열었다. 간호학과는 지난달 26일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학술제를 가졌다.

예술디자인대학은 음악학부 현악연구부의 정기연주회를 5일 진행할 예정이다. 음악학부 성악연구부의 정기연주회는 11일에 열린다. 같은 날 음악학부는 문예회관에서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과의 축제가 열릴 계획이어서 캠퍼스의 활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전문강사제 확대 도입 철회하라”… 교대생 제주시청서 집회

총궐기대회에 200여명 참가
비정규 교원 양산 중단 요구

교육대학 학생 200여명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 초등예비교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교육대학 학생회장은 “전문강사정책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인지 정부의 고용률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인지의 구심이 든다”며 “문제점은 아이들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자리에서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정규교원 확충으로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여는 초등예비교사 총궐기대회에 참여를 대신해 제주에서 따로 열렸다.

윤정환(초등과학교육전공 3) 교육대학 학생회장은 “전문강사정책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인지 정부의 고용률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인지의 구심이 든다”며 “문제점은 아이들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강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자리에서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정규교원 확충으로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정문에서 교육대학 학생회 주최로 초등예비교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 △기능 중심의 강사확대 및 양산이 아닌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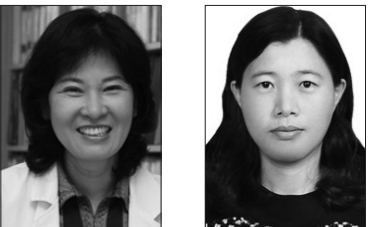
한나연 기자

현진원 교수팀, 상위 피인용 논문에 선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서 펴낸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현진원(의학과·사진 왼쪽) 교수와 박미경 박사후연구원이 지난달 29일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상위 피인용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국제학술지인 ‘Toxicology Letters’에 발표한 ‘Silver nanoparticles induce oxidative cell damage in human liver cells through inhibition of reduced glutathione and induction of mitochondria-involved apoptosis’ 논문이 미국의 민간 학술정보 전문기관인 톨슨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



formation) 사의 Web of Science 기준으로 최근 2년간 75회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은나노 입자의 간세포 독성 및 그 작용기전을 산화적 스트레스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 논문의 제1저자인 박미경 박사후연구원은 현진원 교수의 지도아래 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영철 교수, 사회비평집 ‘구라(口羅)’ 펴내

25년간 발표한 칼럼·기고문 엮어 언론·지역·대학 진단

고영철(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언론과 제주지역, 대학 등에 대해 조명한 사회비평집 ‘구라(口羅)’를 펴냈다.

이 책은 고영철 교수가 25년 동안 각종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칼럼과 기고문 등을 정리해 엮은 사회비평집이다.

그는 책 서문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언론과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의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해왔다”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거미줄 같은 연결망을 의식하지 않고 대학과 제주도의 각종 정책 행위나 사업을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고 교수는 이 책에서 지방신문의 역할, 언론개혁과 제주언론, 제주도의 해외홍보와 각종 여론조사의 문제점, 지역 환경파괴 등 다양한 지역 사회 현안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와 공정, 언론의 역할, 대학 개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서출판 신우·236쪽·1만2000원.

‘재일제주인 교육’

2일 재일제주인센터 주최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가 주최하는 ‘재일제주인의 민족교육’을 주제로 특별전과 학술대회가 2일 오전 11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열린다.

특별전은 ‘민족교육의 선구자 재일제주인 조규훈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문화교류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10월 31일까지 열린다.

오후 2시부터는 문화교류관 2층 시청각실에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학술대회는 양영후(재일 오사카제주도연연구회) 회장의 ‘민족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창익 교수의 ‘재일한국인 개념론의 연구 동향과 과제’, 김정태(백두학원) 이사장의 ‘한국계 민족학교의 현황과 과제’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강은희 동문

발전기금 2000만원 쾌척

강은희(진영마트 대표) 동문이 지난 달 24일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



강은희 동문은 이날 허창진 총장을 방문해 인재양성과 건립, 사범대학 학부생 장학금, 글로벌 교원양성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강 동문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고지희씨 대상 수상

영자신문 영어말하기대회서

신문방송사 영자신문(편집국장 김연주 언론홍보학과 3)이 주최한 34회 영어말하기 대회가 지난달 27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경연 결과 고지희(영어교육과 3)씨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보성(경영정보학과 4)씨가 우수상을, 고초영(영어영문학과 4), 이종혁(의학과 1)씨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총장상과 상금 50만원, 우수상에는 총장상과 상금 30만원, 장려상에는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시청

↑

← 제주여고

↓ 제주대

→ 학원

아라중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www.jnuri.net

jeju를 여는 창!

jnuri

인터넷 뉴스 & TV

제보 및 문의 : 064-748-3883

FAX. 064-748-3882 E-mail. jnuri@jnuri.net

제33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제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12월 9일(월) 18:00까지

4.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6. 발표 : 제주대신문 2014년 신년특집호 (2014년 1월 1일 발행 예정)

신문방송사 제주대신문

교수시론

좋은 책을 고르는 법



최 낙 진
언론홍보학과 교수

“

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도의 문화적 행위이며, 그 과정에 개인사, 독서 이력, 성과, 유행과 구별하기 힘든 취향, 사회적 '강권' 등 제반 요소가 많다

”

둘하르방



김 동 현
여론사회부장

제주대가 주최하고 LINC사업단과 JDC가 주관하는 일자리박람회가 2일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LINC사업단 가족회사 일자리박람회 등 작은 규모의 일자리박람회는 학교에서 종종 열려 왔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올해 처음이다. 일자리박람회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매년 열려왔다. 지난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에서 열렸으며 재작년에는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공동으로 주최해 일자리박람회를 진행하다 보니 고등학생이나 중·장년층도 많이 참여하게 됐다. 그로 인해 재학생들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이

적어 제주대의 취업을 향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한 학교와 떨어진 곳에서 열리다 보니 이동시간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참여하기엔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학내에서 개최돼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LINC 사업단 주최로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는 규모는 작았지만 학내에서 열려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일자리박람회에 학생들이 이벤트를 기획해 참여하는 점도 매우 새롭다. 기존 일자리박람회는 무미건조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자리박람회 분위기와 다소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기획을 통해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한다면 많은 학생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박람회는 단순히 면접만 보고 적성검

들을 보면 무조건 사고 본다. 일종의 수집이다. 1970년대 철거민의 애환을 다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00쇄를 대표하는 상징적 소설이 되어 있다.

법정의 ‘무소유’도 100쇄를 대표하는 책 중의 하나이다. 오천석의 ‘노란손수건’은 1977년 출간된 이래 200쇄를 넘어서었다. 조정래의 10권짜리 ‘태백산맥’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각 권도 통합 200쇄를 넘어선지 꽤 되었다. 번역본으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가 200쇄에 올라 있다.

저자나 작가가 추천하는 책들을 고르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나에게는 E.H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책은 ‘점식꽃 당신’ 도종환이 어느 글에선가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가 보내준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며 추천한 적이 있다.

도종환은 이 책을 보고 나서 예술에 대한 깨멍을 한 것 같다고 하였다. 나에게도 이 책이 미술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만들어 주었음이 분명하다. 나는 때 해 이 책을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권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는 나의 애장도서 1번이다.

출판사 이름을 보고 책을 선택하는 것도 편찮다. 특정 출판사의 권위와 전통을 믿고 책을

사만 받는 자리가 아니다. 미리 취업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지금부터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 많은 학생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일자리박람회 참가기업을 보면 아쉬움도 뒤따른다. 직접 채용하는 40개 기업 중 20개는 제주대와 가족회사이며 10개는 첨단 과학단지에 위치한 기업이다. 약 10개 기업만이 새로 참여했다. 간접 채용 기업이 20개 정도 있지만 이들 기업이 일자리박람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일지는 다소 의문이다.

기존에도 간접 참여 기업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일자리박람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금 더 많은 수,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이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에 열리는 일자리박람회에 학생들이 많

고르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출판사들이 많다. 민음사, 창작과 비평사, 문학과 지성사, 한길사, 열화당, 범우사 등에서 나온 책들은 어느 것이든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내 개인적으로는 시는 창작과 비평사, 문학 및 문화이론은 문학과 지성사, 인문학은 민음사, 사회과학은 한길사, 예술은 열화당, 문고는 범우사 책들을 선호한다.

더 나아가 이들 출판사와 대학 중 어느 곳이 더 무게가 나갈까하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언젠가 일본 사람에게서 이와나미(岩波) 출판사의 문고본과 동경대를 바꾸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결코 허튼 이야기가 아니다. 좋은 출판사는 좋은 대학 이상으로 ‘지식사회’에 대한 기여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좋은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보았다. 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도의 문화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 개인사, 독서이력, 성과를 위한 필요, 유행과 구별하기 힘든 취향 그리고 미디어를 포함한 사회적 ‘강권’ 등 제반 요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책 선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개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책의 선택은 좋은 스승을,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소중한 행위라는 점이다.

이 참여하길 바란다. 아무리 좋은 기획이 있어도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취업에 아직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해 분위기를 익혔으면 한다.

다음으로 올해처럼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일자리박람회가 매년 학내에서 열렸으면 한다. 일자리박람회 취지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취업매칭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취업에 대해 배우는 것도 있다. 많은 학생들이 미리 기업에 대해 익히고 면접 진행 방식이나 인재 채용 방법 등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일자리박람회 참여 기업들이 점차 늘어났으면 좋겠다. 올해 40개의 직접 채용 기업과 20개의 간접 채용 기업이 참여해 1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 많은 학생을 채용하는 실속 있는 일자리박람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동문칼럼

한 없는 도전과 한 없는 꿈 그리고 한 없는 미래



홍 성 수
한국도시정책학회 이사장
관광학과 75학번

만 31년의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나는 늘 ‘제주인’이라는 울타리에서 살았다. 특히 제주대학 출신이라는 ‘독특한’ 학력 때문에 제주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80년대초 신문군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계는 중앙 일간지 6개와 지방지는 1도 1사로 통합할 되는 바람에 신문기자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었다. 중앙지에서 지방대학 출신 기자는 정말 희귀한 존재였다. 더구나 제주대학 출신은 그 전에도 없었지만 나중에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늘 주시의 대상이었다. 내가 잘못하면 제주대학 출신의 위상은 물론 모든 제주 출신 기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게 뻔했다. 누가 지켜 보지 않나 하는 조바심에 일거수 일투족에 신경을 썼다.

다행인 것은 신문기자의 실력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사 한줄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정보력 취재력 문장력 예시력까지 기사 한줄에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취재 지사가 내로라한 기사를 출고했는데 3번이나 퇴짜를 맞았다. 다시 쓰라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야마(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선배의 지적이다. 선배의 충고에 두번 세번 썼다. 출고된 기사는 내가 쓴 것과는 거의 다른 내용으로 각색 되어 있었다. 내가 출고한 기사보다 훨씬 잘 다듬어져 있었다.

그때부터 모든 인터뷰 기사를 속독했다. 인터뷰 기법도 다시 배웠다. 인터뷰 기사는 한정된 지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는 것이다.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주변 취재가 철저해야 함과 동시에 문장이 간결해야 한다.

두번째 인터뷰 기사는 처음 출고 기사가 그대로 나왔다. 그때 자신이 생겼다. 열심히 하면 이룰하고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딪치는 문제가 취재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다. 학연이나 지연으로 연관된 취재 대상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세칭 일류대를 나온 친구들은 선배 후배 하면서 쉽게 접근이 되는데 나는 그야말로 ‘맹땅에 해당’해야 하는 처지였다. 여기서도 좋은 노하우를 습득했다. 한번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처신하는 것이다. 기사가 나왔으면 언제 나왔다고 알려줬고, 아무리 나쁜 기사라도 너무 가혹한 표현은 자제했다. 20여 년을 하다보니 그 분들이 든든한 나의 울타리가 되어줬다. 30년 쯤 지난뒤에는 중앙 언론계 마당발 몇사람에 내가 거론될 정도였다.

제주대학 출신들 중 중앙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행정고시출신으로 1급 관리관으로 승진한 이도 있고, 현역 경찰에서 제주출신 중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제주대학 출신이다. 대학생의 취업선호도 1위 기업의 대표이사 역시 제주대학 출신이다. 그 분들이 오늘이 있기 까지는 다른 친구들보다 두배 세배 이상 노력한 결과다. 가끔 이들을 만나 소소한 것을 기울인다. 탐의 위치에 어떻게 왔는지 서로 얘기 안해도 다 알기 때문에 기본 좋게 취할때가 있다.

그들과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중앙에선 다 인정하는데 정작 제주대학에선 소홀한 것 같아 아쉽다는 전언이다. 이런 훌륭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후배들이 듣고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제주대학 출신보다 못한 인사들을 초청, 학생들에게 어설픈 ‘활’을 푸는 광경보다 훌륭한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대학의 열린 자세를 기대해 본다.

독자기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려면



김 현 아
행정학과 2

휴강일로 정한다. 그리고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등 많은 학교의 단체들이 축제를 홍보하고 단단히 준비한다.

하지만 그 축제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실망감만 남겨주고 끝난다. 그러면 왜 대학생들은 축제에 실망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축제의 끝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축제가 끝나고 나서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모든 대학 축제의 가장 큰 이슈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모은다.

하지만 연예인이 실제로 공연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으며 공연하는 시간은 대개 한밤중이다. 많은 대학생들은 그 공연을 끝까지 보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공연 이후에 버스가 전부 끊기고, 이 제주대 근처에는 택시마저 잘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자려고 하면 숙박할 만한 곳도 없다. 공연이 끝나면 보이는 것은 그 주위에 널려있는 주점들뿐이다. 공연이 끝나고 난 후, 늦은 시간에 공연을 즐기고 나서 지친 몸으로 하루 종일 주점에 있는 것을 대학생들은 딱히 선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축제 때, 주최하고 있는 행사들이 주로 주점이라는 것이다. 오후에 축제를 즐기려는 학생들이 밖에 나오면 천막들은 많

으나 텅텅 비어 있다. 뭐라도 하고 있는 천막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보이지가 않는다.

잠깐이나마 조그마한 행사라도 참여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비어있는 천막들은 주점을 개최하려는 장소이다. 그리고 그 주점들은 오후에는 문을 열지는 않는다. 또한 대학생들 역시 낮부터 주점을 찾지는 않는다. 결국 축제를 즐기려는 많은 학생들은 한밤중이 돼서야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는 행사가 시간이 정해진 그 순간에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개최하는 장기자랑 대회라든지, 노래 경연대회, 커피 경연 대회 등은 거의 오후 4시쯤 돼서 이뤄진다. 그리고 그 행사의 상금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는 일시에 많은 학생들을 끌어 들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 수는 없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즐길 수 있을 만한 요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뷰티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니큐어를 해주든지 머리를 만져준다든지 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러한 일은 실제로 입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축제 역시 이렇게 한 두시간 하고 짧게 끝나는 행사가 아닌 오랫동안 사람들이 즐길 만한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제는 대학문화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짧은 대학 생활, 대학문화의 꽃인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끝난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최근 단과대학 축제들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 부디 이 축제들에서는 위와 같이 아쉬운 축제가 아닌 사람들이 즐길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제주올레길 ‘놀멍 쉬멍’ 걷계마침



홍 인 후
사회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그렇지만 사실 나는 걷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다른 재밌는 취미가 얼마나 많은데 걷기라니...” 걷기를 부모 세대가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 정도라면 여가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

그랬던 나는 요즘 걷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벨레기 간세(제주올레 청년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 서포터즈의 부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주말이면 올레길을 걷고 청소하고 있다. 게다가 거의 매일 올레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걷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지금은 삶의 큰 부분이 되어버린 제주올레. 제주도 토박이로 자라는 나에게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올레길은 단순히 익숙한 동네길기 아니었다. 올레길은 어머니 눈가의 늘어난 주름처럼 몰라줘서 안타깝고 미안한 제주의 얼굴들이었다.

‘벨레기 간세’는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이 지은 이름이다. 이는 청미래당굴과 조랑말의 제주방언을 합쳐서 만들어졌다. 서명숙 이사장은 벨레기 간세 2기의 첫 모임 때 “‘벨레기’나 ‘간세’ 모두 ‘게으름 판다’는 부정적인 뜻의 방언이지만 오히려 여행을 하며 걸을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벨레기 간세는 ‘유별나게’ 제주와 올레를 사랑해 전국 각지에서 하나둘씩 모여 만

들어진 청년들의 모임이다. 벨레기 간세는 클린올레(올레길 청소), 페인트 보수작업, 제주올레 걷기축제 시내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벨레기’들은 요즘 제주올레 걷기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제주올레에 큰 행사 중의 하나인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10월31일부터 3일간 열린다. 지난 8월 25일 제주시청벽화에서 시내홍보를 했었다. 또 다가오는 10월5일에는 서울 흥대거리에서 시내홍보를 발일 계획이다. 이번 걷기축제에서는 제주 전통국과 전통놀이의 체험, 인형극과 그림자극, 지역주민들이 펼치는 공연들과 밴드들의 공연들이 펼쳐진다.

올레는 그동안 렌트카 또는 관광버스를 타고 제주도를 누비던 관광객들을 차에서 내려 걷게 만들었고 숨겨진 제주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주올레의 아름다움은 길을 걷는 외국인들도 극찬하고 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못지않은 올레만의 매력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트래킹 명소 자리잡아가고 있다.

무언가를 꾸미고 다듬어서 내놓아야 관광지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제주도민들이 사는 동네 구석구석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로 이어서 하나의 길로 만든 제주올레의 가치를 우리 제주도민 스스로 인지하고 이를 지키고 발전해나가야 한다.

나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의 한 교수님은 제주올레의 성공요인을 “올레길을 걷는 올레꾼들에게 무언가 정보를 억지로 주입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레꾼들이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성들로 자신만의 추억과 이야기들을 만들었기에 더 애정을 갖게 돼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다. 개발의 홍수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제주의 ‘속살’을 보게 해 준 제주올레와 같은 관광문화가 제주에 보다 많이 뿌리내렸으면 한다.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 조성 해양문화 관련 사업 발굴”

인터뷰 김은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주인은 제주도민들입니다. ‘문화와 예술로 가꾸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자로 제6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김은석(초등사회교육) 교수는 “제주도민들을 위해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들만의 단체라고 보는 외부 시선들이 있는데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재단의 주인인 도민들이 문화와 예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이를 즐길 수 있게 물적·인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전시나 공연에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재단이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각 분야별 세부 발전계획을 통해 제주의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이루려는 각오도 다졌다. 그는 “추상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는 현장을 의면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각 분야마다 전문가 집단과 현장 문화 예술인들을 아우르며 제주만의 특성을 가진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가 독특한 해양문화를 보유하고 있다”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해양문화와 연결된 독특한 사업들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제주대 초등교육연구소원장, 교학처장, 부총장을 역임하는 한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문화·예술계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재단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찬우 기자

» 다양한 장학금 혜택 제대로 알기

‘장학금’은 대학생에게 가깝고도 먼 단어다. 그런데 장학금지급 내역을 보면 각양각색이다. 누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도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이야기라는 학생도 있고, 받는 사람은 또 받는 데 못 받는 사람은 만날 못 받는다는 말도 있다. 또 장학금 이름도 종류도 천차만별이라 머리가 지끈 거린다. 근로장학금, A급 장학금, 국가장학금 I, II 유형 등 도통 알 수가 없다. 이에 제주대신문에서 장학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다.

제주대 1인당 184만원... 지역거점국립대 4위

국가 장학금 - 근로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
자신의 강점과 관련된 장학금 지원 받아야

장학금 받기 위해 높은 성적 필요 없어

지난해 제주대 학부생 1인당 평균 장학금 지원액이 184만15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거점국립대 4위의 성적이다. 제주대 연간 평균 등록금이 378만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등록금의 48.7%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수치만 보면 제주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매우 높다.

학생마다 장학금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은 비단 학점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예전에는 장학금의 대부분이 성적 우수 장학금이었기 때문에 학점이 높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데 유리했다. 하지만 요즘은 장학금이 워낙 다양해지면서 일정 성적만 넘기면 다른 조건을 보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다문화 멘토링 사업 등은 100점 만점에 80점(제주대 기준 2.4)만 넘기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교내 장학금의 기준은 2.7이다. 예전에는 학점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활동 내역, 소득 분위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교내 장학금은 특별장학·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교내 장학금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교내 장학금은 국립대의 경우 일반 회계의 30% 이내와 기성회계의 10.5% 안팎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국고세입으로 정부지원금이나 수입료 등이 포함돼 있고 기성회계는 학교운영비로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교내 장학금은 특별장학생과 학과별 성적 우수자에게 배분된다. 특별장학은 국가유공자, 가족장학금, 우수 신입생, 부속기관 활동을 통한 장학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영어우수장학, 고시 합격, 봉사 점수 등 일회성, 포상성 장학금도 특별 장학으로 분류된다. 학과별 성적우수자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성적(학점, 토익 등 어학 성적, 참여점수)이 높은 학생들이 받는다.

교내 장학금은 이토록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인 부분을 알고 이에 맞게 노력해야 한다. 내가 학과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다면 성적 우수 장학금을, 어학 성적이 높다면 영어 우수 장학금을, 멘토링 사업 등 근로를 통해 장학금을 받고 싶다면 근로 장학금

을, 다양한 활동을 했다면 경력점수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일정학점만 넘기면 된다. 높은 학점보다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교내 장학금의 특별장학 중 교내 기관에 소속돼 근로를 한 뒤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다. 교내 기관에서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금 정원을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중앙자치기구와 단과대학의 회장·부회장, 학과 회장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교외 장학금 조건 제대로 알아야
혼선 안생겨

교외 장학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각종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형식이다. 둘째는 부모가 근로하는 곳에서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셋째는 기업과 연계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공고는 학교 홈페이지의 장학소식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인터넷에 장학금 혹은 장학재단이라고만 치면 사이트와 카페에서 장학금 소식을 알 수 있다.

즉 장학금에 관련된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이다. 대부분의 교외 장학금은 학점이 필수이다. 자기소개서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한 조건이다. 제한 조건은 소득 분위기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일가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다. 아산현대재단은 탈북자를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에서 자사를 알리기 위해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제한은 심하지 않지만 지원해주는 학생이 한정적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의 폭은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재단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적시해야 한다.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은 무엇이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기본 차원의 장학금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가문인지도 아는 것이 좋다. 장학금의 학점을 기재할 때는 4.5



일러스트=김소영 기자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다양하게 나뉘져 있다. 자신의 조건을 알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만점으로 기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주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 4.3으로 환산한 점수보다 4.5로 환산한 점수가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장학생에는 제주도 인재육성장학금, 제주도 청소년 육성기금장학금이 있다. 각종 장학재단, 기업 장학금에는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학재단, 제주장학재단, 고양부삼성사재단, 두울장학재단, 수협제주도지회, 송암문화재단 등 다양한 재단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모가 근무하는 기업의 장학 제도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학점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종수혜 논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기업과 연계해 받는 장학금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실시하는 장학제도이다. 대개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이 그 기업에 입사한다는 조건을 걸고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이 장학금도 받고 추후 취업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다만 대학을 다니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만약 그 회사에 취직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전액 변상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이 명확하다면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

다양한 교외 장학금이 있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교외 장학금을 등록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등록금 범위를 초과했다면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되지

않는다. 또 장학재단 중에서 자신의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다른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발전기금 장학금도 있다. 제주대에 발전기금을 낸 기탁자가 정한 장학금 지급 조건에 의해 선발할 때도 있고,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학교 측 재량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이종지원 논란 조심해야

이종지원은 한 학생이 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이 자신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두 번 이상 지원받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 장학금으로 일정부분 지원받은 뒤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등록금 이상을 받았다면 이종지원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등록금에서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근로장학금이나 일회성, 포상성 장학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성기(학생복지과) 실무관은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장학재단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이 있기에 이러한 정보를 찾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학생들이 교외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재단에 감사 편지 하나라도 보내면 후배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 해양수산조항선 ‘제라호’ 취항

해양조사선 중 국내 최대 규모

최신 장비 갖춰 ‘바다 위 해양기지’ 기대

제주에는 동중국해, 서해와 남해와 접하고 있는 등 지정학적으로 수산해양 연구에 가장 알맞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갖췄지만 현장 교육과 기초자료 수집을 담당할 조사선이 없어 우리대학은 교육과 연구에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갈증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최신 연구 장비를 갖춘 해양수산조사선 ‘제라호’가 취항했기 때문이다. 이날 취항식에는 허항진 총장, 이준백 해양과학대학장, (사)이여도 연구회장 고충석 전 총장, 김성태 동선조선 회장, 송지운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가했다.

허항진 총장은 축사에서 “건조과정에서 두 차례나 건조를 맡았던 조선소의 부도로 위기를 겪었지만 많은 교수님들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알찬 결실을 맺었다”며 “현대적인 장비와 규모를 갖춘 제라호가 취항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산해양연구가 획기적으로 진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준백 해양과학대학 학장은 “제라호가 제주 연구해와 나아가 동중국해를 연구하고 탐사하는 데 이롭 그대 제라진 조사선이 되길 바란다”며 “장보고와 이순신 시대를 이어 해양강국의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라호의 이름은 ‘제라지다’라는 제주어로 무엇이든 최고란 뜻이다. 교직원, 학생, 동창회 및 전국관련 대학에 공모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 조사선은 전장 38.64m, 선평 7.5m의 규모로 최대속력은 13.65노트, 항속거리가 5370.8km이다. 배에는 연구원·

선원 등 29명까지 승선 가능하다.

또한 초음파 전자해류계, CTD SYSTEM, 유식식 무인 잠수정(ROV) 등 최신 장비 시설을 갖춰 어류자원 파악, 해저지층 연구, 수질탐구, 수중입자크기 분석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각종 해양관측 및 어업자원 조사 분야에 국제 수준의 연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김상범(선박운항관리센터) 실무관은 “수해양계 대학 7곳 중 조사선을 보유한 곳은 5곳뿐이다. 이번 제라호 건조로 제주대는 가장 큰 규모의 해양수산조사선을 갖게 됐다”며 “이는 기존 보유한 아라호와 함께 연구·교육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분야의 연구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우리나라 연근의 해역에 해양 물리학, 화학, 생물학 및 지질학의 연구조사와 수산 및 어업자원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대학은 실습선으로 1974년 백경호를 부산수산대학에서 관리전환받아 해양분야의 연구 및 승선실습에 이용했다. 이어 1984년 여수수산전문대학에서 한라호를 관리전환받아 승선 교육으로 사용하다 이후 기상청으로 관리이관했다.

1990년에는 삼천포 세관에서 경남 343호를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아 사용했다. 2000년에 인수해 해양조사 및 승선실습으로 사용하던 아라2호는 올해 4월에 해각했다. 현재는 1993년에 건조한 아라호를 학생들의 승선실습에 이용하고 있다.

강경태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제라호 취항식에서 해상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JDC 대학생아카데미
머뭇거리지 마라, 청춘아



문의 064) 754 - 2306

*제주대 취업전략본부

VOD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b.com/JDCAcademy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09.02 김한욱 JDC 이사장
제주도개발과 환경보존,
우리의 자제



09.03 오중철 소동태이너
OnlyOne한 꿈을 꾀라



09.10 김광연 공모전의 신
불광불금, 미쳐야 미친다



09.17 유지성 오지레이저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09.24 김영하 작가

꿈을 이룬 내가, 오늘을 사는 너에게...



10.01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10.22 최중학 서울대 교수
세계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세계



10.29 김봉정 컨설턴트
실전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11.05 노광철 집치독 대표



11.12 손보미 작가
청춘 멘토링,
나만의 기록 만들기